



메인비즈協, 회원사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메인비즈협회는 시장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메인비즈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돕는다고 9일 밝혔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오른쪽)이 박재천 한국시장경제진흥원 이사장과 지난 8일 서울 동대문구 협회 사무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



중소사랑나눔재단, 단양에 쌀 2700kg 전달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지난 8일 충북 단양군경시장을 방문해 1000만원 상당의 쌀 2700kg을 구입하고 이를 단양노인복지관, 단양장애인복지관, 다래동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단양군지회 등 4개 지역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왼쪽 4번째부터)한병준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문군 단양군수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유한양행, 몽골 사막화 방지·탄소중립 실현 협력

유한양행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에서 한국·몽골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며 '몽골 사막화 방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왼쪽부터)박종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 오윤사나 몽골 산림청장, 조옥제 유한양행 사장, 볼드바타르 빌리언 트리스 대표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양행



광동제약, '헛개파워 스틱 젤리' 출시 캠페인

광동제약은 숙취해소제 '헛개파워 스틱 젤리' 출시를 기념하며 서울강남경찰서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책임 있는 음주문화를 확산하고 일상 속 숙취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광동제약



하나銀, 전국 장애인·돌봄가족에 포용금융 제공

하나은행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돌봄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왼쪽)이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과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기아, 교육·인턴십 등으로 다문화 청소년 성장 지원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통해 다문화 전문가와의 대화 등 마련 우수 수료자에 장학금 시상 2기 교육생에 응원 메시지 전달

기아는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1기 수료식 및 2기 입학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하모니움은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및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새롭게 시작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 4월 1기 교육생을 모집해 다문화 청소년들의 선호 영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IT기술 ▲F&B ▲영상편집 ▲조경기술 등 4가지 특화 교육영역을 진행했다. 교육 영역의 소셜벤처들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기아 하모니움 2기 입학식.

다문화 선배 초청 특강, 오토랜드 견학 및 개인 프로필 촬영 등 특별 프로

그램도 진행했다. 수료식에서는 1기 교육생들이 참여

LS, 강릉 가뭄현장 소방공무원에 간식 제공

‘LS러브스토리’ 3호 선정

LS는 최근 극심한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급수 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을 ‘LS러브스토리’ 3호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LS 러브 스토리 3호로 선정된 소방공무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강릉지역으로 파견돼 가뭄 피해 복구를 위한 급수 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있다.

LS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강릉 강북공설운동장 인근에서 커피차를 운영하며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음료 7종과 샌드위치 등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LS가 9일 강릉 강북공설운동장 인근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커피차를 운영하고 있다. /LS

LS 관계자는 “가뭄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강릉지역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가뭄과 무더위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이웃을 돕는 소방공무원들이야말로 진정한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되며, 이 작은 보탬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이대목동병원,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박차

이뮤니크와 ‘맞손’

이대목동병원이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인 ‘이뮤니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재생불량빈혈 조절 T세포치료제의 기초 및 비임상연구 수행 ▲임상시험계획 수립 및 관련 인허가 절차 지원 ▲연구 성과에 대한 학술 발표 및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 정보 및 연구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대목동병원의 임상 역량과 이뮤니크의 세포치료 기술을 결합해 조절 T세포 기반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임상에 빠르게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뮤니크 권소미 대표이사는 “이번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서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왼쪽)과 권소미 이뮤니크 대표이사(오른쪽)가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협력은 조절 T세포(Treg) 기반의 차세대 면역치료제를 통해 희귀질환의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재생불량빈혈을 포함한 자가면역질환에서 보다 근본적인 치료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신한금융그룹, 韓-日 금융협력 강화

‘韓·日 금융협력 세미나’ 열어 SDGs·디지털 분야 협력 모색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이 주최하고 신한금융이 후원한 ‘한·일 금융협력 세미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디지털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 금융기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금융을 비롯해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 일본 금융청, 아시아자본시장협회, 아시아개발은행 등 해외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첫째 날 세미나는 ‘전환금융과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이 이토 유타카 일본 금융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참가자들은 금융권의 전환금융 실행 방안과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가능성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특히 신한금융은 지난 5월 국내 금융사 최초로 제정한 ‘그룹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저탄소 전환 추진 전략과 관리체계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인사

- ◆ **동양생명** ◇임원 선임 △준법감시인 이사대우 박선영
- ◆ **농촌진흥청** ◇과장급 직위승진 △청장비서관 나상수 ◇과장급 전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손영상

부음

- ▲ **김영태씨** 별세. 김기훈(NH투자증권 SME부 부장) 부친상 = 8일, 경기 김포 아너스힐병원 장례식장 VIP3호실, 발인 10일, 장지 김포추모공원. 031-989-4404